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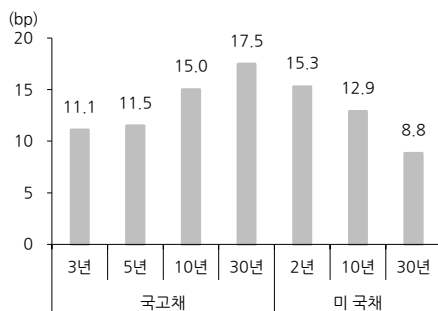
FI Weekly

물가는 정점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크레딧 한시화 shhan1229@hanwha.com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7/24)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3.96%	3.93~4.03%	약보합
국고 5년	4.21%	4.18~4.28%	상승
국고 10년	4.45%	4.38~4.53%	상승
국고 10-3년	48.8bp	43.0~53.0bp	확대
미국 10년	4.68%	4.58~4.73%	약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가 인상 명분은 충분, 연속 인상 명분은 불충분

물가 환경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시사. 그러나 추가 인상과 별개로 상황이 연속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가를 따져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 인상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공격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물가확산압력을 추정해보면, 여전히 압력은 높지만 정점을 서서히 지나가는 모습. 총재의 이야기대로 현재 물가확산압력이 코로나 이후 최대치인 것은 맞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은 크지 않음. 비록 7월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이는 월중 유가 상승 때문일텐데, 이 유가가 다시 한번 배럴당 100달러 중, 후반전까지 튀어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 여름이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고점이라는 전망을 유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 압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음.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약 2.1명~2.4명으로, 전 산업 평균(약 8.2명~10.1명)과 제조업 평균(약 5.1명~6.2명)에 비해 낮은 수준. 증시호조로 투자 수익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보유주식가치가 100만원 증가했을 때 소비는 1만 3천원 증가에 그침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발표

7월 22일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최종안 발표. 기업 자구노력과 이행투자를 합한 규모는 약 8,000억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2,725억원씩 총 5,450억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며, 조달 자금은 여천NCC 시장성 차입금 상황에 투입될 예정. 통합법인은 공급망 배관 및 인프라 투자 등에 총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 정부는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 최대 4,500억원의 신규자금, 2029년 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유예,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등. 실질적인 부채 감축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5,450억원 유상증자가 담당하는 구조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크레딧 스프레드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재편 효과가 실제 수익성 개선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발 공급과잉과 설비 가동중단에 따른 신규 차입부담도 남아있어 추가적인 신용도 개선 기대만으로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될 여지도 크지 않음. 당분간 석유화학 관련 기업 스프레드는 추가 확대와 축소 여력이 모두 제한된 채 현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 채권시장 전망

1. 채권: 정점에 있는 물가

물가가 높다지만
백투백 인상에
나설 정도는 아님

한국은행을 기준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물가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유가 급등, 이로 인한 물가 반등과 내수 회복과 관련한 수요 압력은 7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추가 인상과 별개로 상황이 연속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가를 따져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인상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공격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물가확산압력은
정점을 지나는 모습이고
7월 물가 반등은
일시적일 것

한국은행 물가확산지수 산식에 기반해 12대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물가확산압력을 추정해보면, 여전히 압력은 높지만 정점을 서서히 지나가는 모습이다. 총채의 이야기대로 현재 물가확산압력이 코로나 이후 최대치인 것은 맞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은 크지 않다. 비록 7월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이는 월중 유가 상승 때문일 것인데, 이 유가가 다시 한번 배럴당 100달러 중, 후반선까지 튀어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여름이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고점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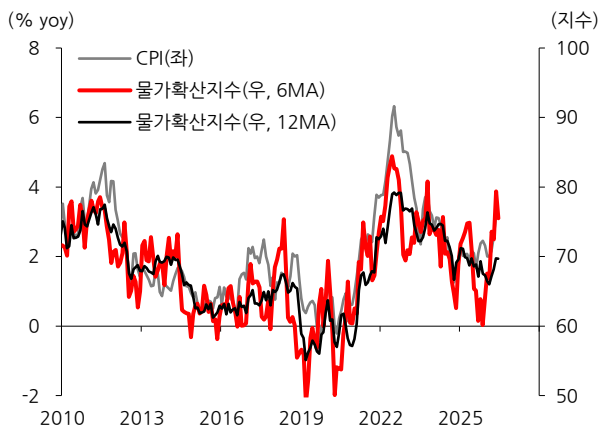
수요측면 압력도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음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 압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반도체 기업 성과급은 일부 고용자들의 이야기다.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약 2.1명~2.4명으로, 전 산업 평균(약 8.2명~10.1명)과 제조업 평균(약 5.1명~6.2명)에 비해 낮다. 증시 호조로 투자 수익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보유주식가치가 100만원 증가했을 때 소비는 1만 3천원 증가한다. 무엇보다 주식시장 강세 모멘텀은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켜볼 시간을 확보
물가는 중립적으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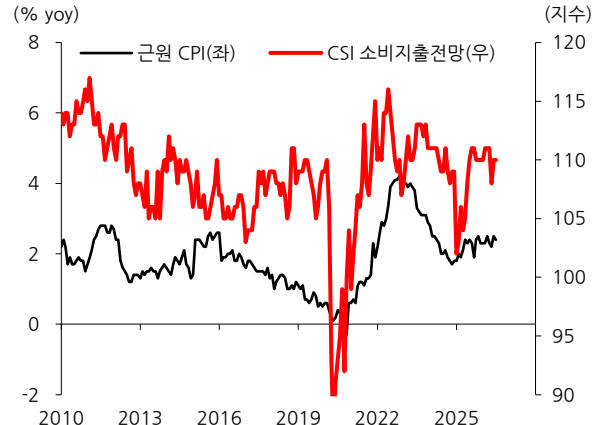
지금은 물가가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물가가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목표 레벨 위에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긴박한 대응보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살펴가면서 추가 긴축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도 물가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림1] 물가 상승 압력 고점 확인



주: 물가확산지수 산식은 한국은행과 동일하나 구성지수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수요 압력도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크레딧: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발표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최종안 승인

7월 22일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최종안이 발표됐다. 현재 정부 승인을 받은 석유 화학 사업재편 프로젝트는 대산 1호와 여수 1호 두 건이다. 두 프로젝트에서 확정된 NCC 가동중단 계획은 대산 110만톤과 여수 139만톤을 합한 연간 249만톤으로 최대 감축목표 370만톤의 67.3% 수준이다. 여수 1호의 공식 감축 규모 139만톤 중 여천 NCC 3호기 47만톤은 2025년 8월부터 운휴 중인 설비이며,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2호기 92만톤의 추가 가동중단이 확정됐다.

기업 자구노력
약 8,000억원

사업재편은 기업 자구노력과 정부 지원이 병행되는 구조다. 우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다운스트림 사업부문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 NCC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여천NCC가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기업 자구노력과 이행투자를 합한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2,725억원씩 총 5,450억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며, 조달 자금은 여천NCC 시장성 차입금 상환에 투입될 예정이다. 통합법인은 공급망 배관 및 인프라 투자 등 총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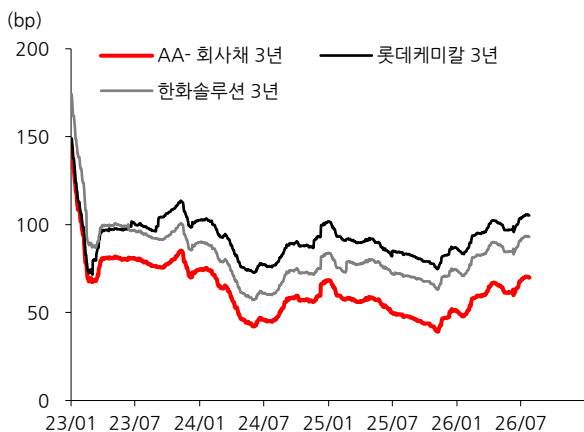
정부 지원 패키지
7,000억원 이상

정부는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최대 4,500억원의 신규자금, 2029년 말까지 협약채무 상환유예,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자금은 투자재원과 유동성을 보장하지만 인출 규모만큼 신규 통합법인의 차입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상환유예는 차입금 만기를 연장해 단기 차환 및 현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조치로 부채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없다. 세제, 원가, R&D 등 550억원 이상의 비금융 지원도 병행되며, 신규대출의 세부 조건은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부채 감축은
기업 자구노력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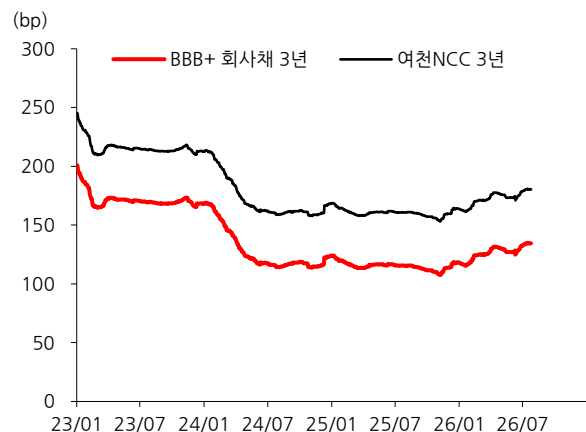
실질적인 부채 감축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5,450억원 유상증자가 담당하는 구조다. 2026년 3월 기준 여천NCC의 차입금은 1.5조원이며, 이 가운데 시장성 차입금이 5,450억원이다. 증자금으로 이를 모두 상환하면 단순 계산상 총 차입금은 9,871억원으로 35.6% 감소한다. 부채 상환으로 회사채 차환 부담이 줄어들고, 잔여 협약채무도 상환이 유예돼 단기 유동성과 만기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림3]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여천 NCC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신용 스프레드는
현 수준 등락 전망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크레딧 스프레드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천NCC의 단기 유동성 및 차환위험이 완화되는 만큼 스프레드가 급격히 추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사업재편 효과가 실제 수익성 개선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발 공급과잉과 설비 가동중단에 따른 신규 차입부담도 남아있어 추가적인 신용도 개선 기대만으로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될 여지도 크지 않다. 당분간 석유화학 관련 기업 스프레드는 추가 확대와 축소 여력이 모두 제한된 채 현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석유화학 사업재편 현황

구분	대산 1호	여수 1호
참여기업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여천NCC,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롯데케미칼
통합방식	롯데케미칼 대산사업 물적분할 후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각각 50% 보유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의 다운스트림 부문 현물출자, 롯데케미칼 여수 NCC 등 기초소재 사업 물적분할 후 여천NCC와 통합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균등지분 구조
NCC 감축	롯데 대산 NCC 110만톤 가동중단	여천NCC 2·3호기 139만톤 가동중단
대주주 자구노력	양 주주사 총 1.2조원 증자	한화솔루션·DL케미칼 총 5,450억원 증자 후 여천NCC 부채 상환
이행투자	설비통합, 효율화 2,450억원 고부가친환경 3,350억원	배관 및 인프라·통합운영 1,032억원 의료용 LDPE·접착제용 POE 1,500억원
정부 지원패키지	총 2.1조원 이상 신규자금 최대 1조원 영구채 전환 최대 1조원 세제·유틸리티·R&D 지원	총 7,000억원 이상 신규자금 최대 4,500억원 수입보험 2,000억원 세제·원가인프라·R&D 지원
현재 단계	롯데대산석화 분할 완료. 공정위 최종 심의와 HD현대케미칼 합병이 남은 상태. 합병 목표 시점은 2026년 9월	정부 승인 완료. 향후 계약이사회 승인, 롯데 여수사업 물적분할, 합병, 통합법인 설립 및 채권단 금융지원 확정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전략 안정 재료는 당분간 찾기 힘들 것

국고 3년: 3.93~4.03%
국고 10년: 4.38~4.53%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3.93~4.03%, 4.38~4.53%를 제시한다. 우리가 단기 구간의 마지막 고비로 제시한 8월 금통위까지 확인해야 할 국내 재료들은 2분기 GDP, 3분기 채권발행기관 협의체 회의, 7월 소비자물가 등 세 가지다. 이 중 확인된 GDP와 발행기관 회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특히, 협의체는 하반기 채권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발행량을 더 늘린다고 한다. 좋을 수가 없는 뉴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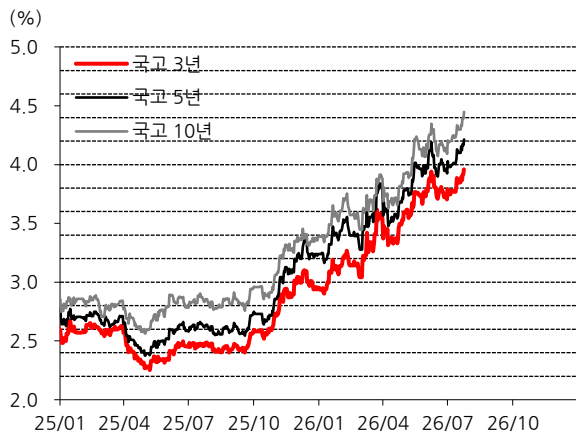
장단기 금리
모두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상황

여기에 더해 7월 물가지표는 상승세가 재차 강해질 전망이다. 비록, 물가확산 압력이 정점을 지나는 모습이고, 수요 측면 압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지만 7월 재상승한 유가를 감안하면 수치 자체는 6월보다 높을 것이다. 재료들 모두 금리의 상승을 지지한다. 국고 3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3.90%를 돌파한 만큼 지금부터는 4%대 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국고 10년 역시 4.50%를 웃도는 흐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을 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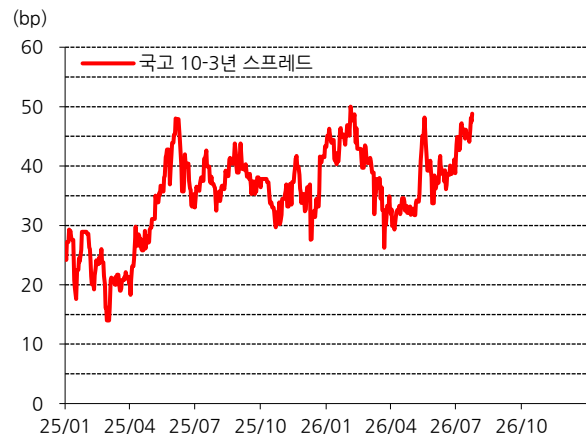
미국 시장은 30일 새벽과 늦은 오후 각각 예정되어 있는 FOMC와 7월 PCE가 메인 이벤트다. 물가의 방향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지만 Warsh 의장은 시그널 제공에 극도로 신중할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이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것이 이전까지의 연준이라면 지금의 연준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말을 아낀다. 미국 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국고 10-3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7/24)		
국고 3년	2.95%(+100.6bp)	3.79%(+16.8bp)	3.96%(+11.1bp)	3.93~4.03%	약보합
국고 5년	3.24%(+97.4bp)	4.00%(+18.6bp)	4.21%(+11.5bp)	4.18~4.28%	상승
국고 10년	3.39%(+106.2bp)	4.17%(+24.2bp)	4.45%(+15.0bp)	4.38~4.53%	상승
국고 10-3년	43.2bp(+5.6bp)	38.4bp(+7.4bp)	48.8bp(+3.9bp)	43.0~53.0bp	확대
미국 10년	4.17%(+51.0bp)	4.45%(+19.9bp)	4.68%(+12.9bp)	4.58~4.73%	약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통화정책 Tracker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7/23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 최근 데이터들은 경제 활동 모멘텀에 일부 개선이 있음을 시사. 서비스부문 활동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며 디지털 서비스 부문은 SI의 일부 영향으로 견조(robust) - 제조업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 국방비 지출 확대가 제조업 모멘텀을 지지할 것 - 기업과 가계는 고용시장이 전쟁 이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성장세는 단기적으로 완만(modest)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역내 경제를 위해 시급한 대응(urgent action)이 필요 - 중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은 건재(remain intact)함 - 에너지 쇼크에 따른 재정지원은 필요 부문에 집중되고, 정교하며 일시적(targeted, tailored and temporary)이어야 함 -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중. 기초적 물가가 안정적이지만 충격이 반영된 것은 아님 - 대부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2% 부근에 위치 - 생산성 개선은 단위노동비용 상승 억제에 기여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2027년 상반기까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well above)한 뒤 둔화될 전망 - 성장은 하방 리스크에, 물가는 상방 리스크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 - 높은 에너지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그 만큼 파급효과도 강해질 것 - 이상기후는 음식료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 - 금융 환경은 지난 회의 때와 비교했을 때 소폭 긴축적으로 변화. 상황이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갔음 -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 9월에는 더 많은(a lot more)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현 상황은 기본 시나리오로 복귀. 그러나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제한적(quite unlikely) - 일부 구성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주장 - 아직까지 물가의 2차 충격은 부재 - 그 어떠한 포워드 가이드선도 제공하지 않을 것. 대신 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이드선을 제공 - 최소 기준율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도 논의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I.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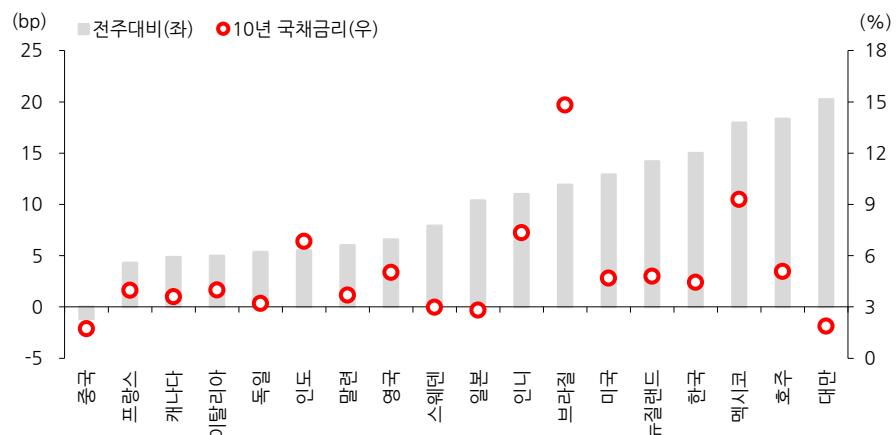
[표3] 주간 국내외 채권시장 동향

시장	금리 및 스프레드	7/23(% , bp)	전주 대비(bp)	전월 대비(bp)	연초 대비(bp)	연 평균(% , bp)
국고채	국고 3년	3.92	6.9	14.7	96.4	3.46
	국고 5년	4.16	6.5	14.8	92.4	3.69
	국고 10년	4.39	9.5	22.1	100.7	3.85
	국고 30년	4.63	16.0	31.7	137.0	3.82
크레딧	정부보증채	20.1	(1.5)	0.0	6.7	17.9
	공사채 AAA	34.5	(1.5)	0.5	11.6	30.9
	특은채 AAA	25.5	(1.4)	(1.2)	8.7	22.4
	은행채 AAA	34.7	(1.4)	(0.8)	9.3	31.2
	카드채 AA+	59.8	(0.6)	3.6	18.0	52.4
	캐피탈채 AA-	74.5	(0.9)	2.6	19.9	67.0
	회사채 AA-	69.8	(0.3)	4.9	19.0	60.9
선진국(단기)	미국 2년	4.35	20.7	15.0	87.6	3.83
	영국 2년	4.49	15.3	33.0	79.4	4.09
	독일 2년	2.88	12.4	29.9	75.8	2.44
	일본 2년	1.49	5.7	7.5	32.1	1.33
	호주 2년	4.61	11.7	13.5	55.4	4.46
	이탈리아 2년	3.09	13.1	34.6	88.0	2.59
	미국 10년	4.70	14.1	19.8	52.7	4.34
선진국(장기)	영국 10년	5.10	13.1	34.4	62.5	4.73
	독일 10년	3.23	6.8	30.7	37.1	2.95
	일본 10년	2.77	6.0	9.4	70.2	2.43
	호주 10년	4.99	10.0	21.3	23.9	4.87
	이탈리아 10년	4.07	12.8	43.4	52.0	3.68
신흥국	브라질 10년	14.94	40.5	39.0	118.6	14.04
	멕시코 10년	9.32	22.5	36.2	20.9	9.05
	인도 10년	6.84	8.5	0.3	24.8	6.82
	인도네시아 10년	7.28	7.2	8.0	117.6	6.70
	튀르키예 10년	32.55	78.8	149.4	544.1	30.14

주: 크레딧 스프레드는 만평 3사 기준 국고 3년 대비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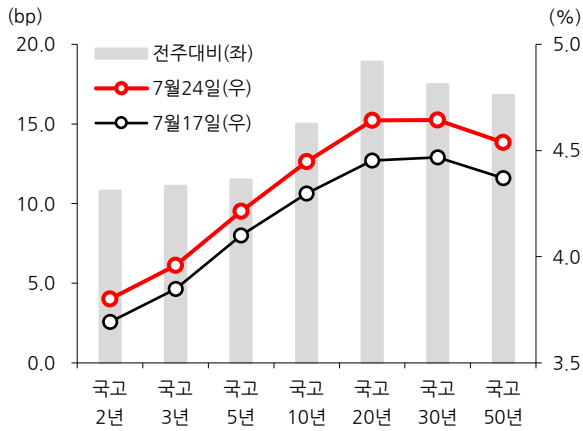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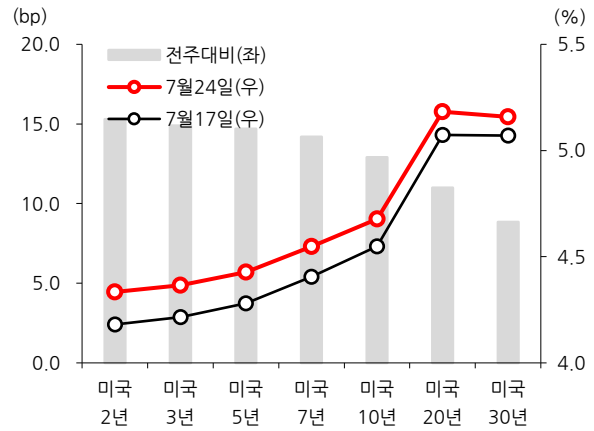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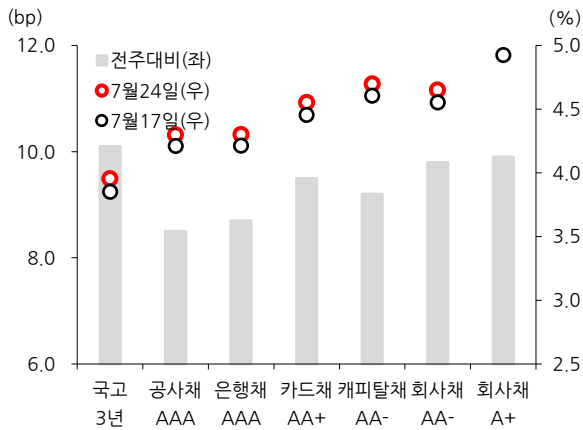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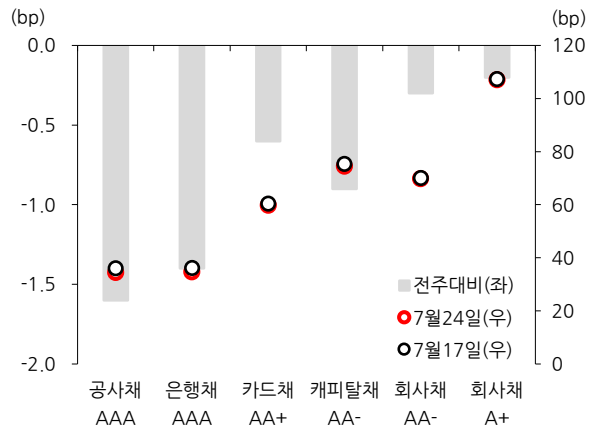
[그림10] 주간 주요 크레딧 금리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3년 만기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주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스프레드는 국고 3년에서 동일만기 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채권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주: 무보증/공모 회사 및 금융채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5] 기업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Ⅲ.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7		28		29		30		31	
(미국) 7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 0.0, 전년: 1.2)		Bullock RBA 총재 연설 (한국) 7월 CSI (전월: 106.6, 전년: 110.7) (미국) 2년 국채 입찰(690억달러) (4.19%, 간접: 55.5%, 응찰률: 2.64배) 5년 국채 입찰(700억달러) (4.20%, 간접: 61.6%, 응찰률: 2.35배) 5월 FFA 주력가격지수 (전월비: 0.1%, 전년비: 2.0%) 5월 Case 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0%, 전년비: 1.1%) 7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 4.0, 전년: -20.0)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92.3, 전년: 98.7)		(미국) 7년 국채 입찰(440억달러) (4.26%, 간접: 57.6%, 응찰률: 2.50배)		미국 연준 FOMC 영국 영란은행 MPC (한국) 7월 제조업 BSI (전월: 101.2, 전년: 91.9) (미국) 6월 PCE, Core PCE (PCE 예상 전월비: -0.1%, 전년비: 3.6%) (Core 예상 전월비: 0.1%, 전년비: 3.3%) (PCE 전월비: 0.4%, 전년비: 4.1%) (Core 전월비: 0.3%, 전년비: 3.4%) 2분기 GDP(속보) (전기비연율: 2.1%) (유로존) 2분기 GDP(속보) (예상 전분기비: 0.2%, 전년비: 0.5%) (전분기비: -0.2%, 전년비: 0.3%) 6월 실업률 (예상: 6.2%, 전월: 6.2%, 전년: 6.3%)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한국) 6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3.1%, 전년비: 1.0%) 6월 소매판매 (전월비: 3.8%, 전년비: 1.7%) 7월 수출입(8/1) (예상 전년비 수출: 60.7%, 수입: 27.4%) (수출 전월비: 16.6%, 전년비: 70.7%) (수입 전월비: 8.8%, 전년비: 30.0%) (미국) 7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예상: 54.2, 전월: 49.5, 전년: 61.7) (중국) 7월 제조업 PMI (예상: 50.1, 전월: 50.3, 전년: 49.3)	
국고		국고		국고		국고		국고	
동안	3개월 입찰 6,000억원	동안	만기 5,000억원	동안		동안		동안	
은행	발행 9,600억원	은행	만기 1,000억원	은행	만기 3,900억원	은행	만기 2,700억원	은행	만기 3,118억원
카드	발행 600억원 / 만기 100억원	카드	만기 1,600억원	카드	만기 1,500억원	카드		카드	만기 1,000억원
회사	발행 1조 61억원	회사	발행 5,000억원 / 만기 1,707억원	회사	만기 1,480억원	회사	발행 1억원 / 만기 1,100억원	회사	만기 3,960억원
8/3		4		5		6		7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전월: 53.3, 전년: 48.4)		(한국) 7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1%, 전년비: 3.1%) (Core 전월비: 0.0%, 전년비: 2.5%) (미국) 6월 수출입 (수출 전월비: 3.3%, 전년비: 13.3%) (수입 전월비: -3.2%, 전년비: 12.6%) 6월 공장 수주 (전월비: -1.3%, 전년비: 2.3%) 6월 내구재 주문 (전월비: -4.5%, 전년비: -4.3%)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6월) (미국) 7월 ISM 서비스업지수 (전월: 54.0, 전년: 50.5) (유로존) 6월 PPI (전월비: 0.2%, 전년비: 5.9%)		브라질 BCB COPOM (한국) 6월 경상수지 (전월: +386.1억\$, 전년: +139.7억\$) (유로존) 6월 소매판매 (전월비: 0.2%, 전년비: 1.6%)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지수 (전월: +57천명, 전년: -20천명) 7월 실업률 (전월: 4.2%, 전년: 4.3%) 7월 뉴욕 연은 1년 기대인플레이션(8/8) (전월: 3.67%, 전년: 3.09%) (중국) 7월 수출입(우안화) (수출 전월비: 6.6%, 전년비: 20.8%) (수입 전월비: 5.3%, 전년비: 29.4%) 7월 PPI(8/9) (전월비: -0.3%, 전년비: 4.1%) 7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3%, 전년비: 1.0%) (Core 전월비: -0.1%, 전년비: 1.0%)	
국고		국고		국고		국고		국고	
동안	3개월 입찰 6,000억원 / 만기 6,000억원	동안		동안	2년 입찰 2조원	동안		동안	
은행	만기 7,500억원	은행	만기 2,800억원	은행	만기 4,200억원	은행	만기 1,900억원	은행	만기 1조 2,600억원
카드	만기 300억원	카드	만기 600억원	카드		카드	만기 3,500억원	카드	만기 1,300억원
회사	만기 1,700억원	회사		회사	발행 1억원	회사	만기 2,660억원	회사	만기 1,050억원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